

종합·해설

“땃줄인사는 인권유린...지역·학벌 초월 인사민주화 필요”



새누리 이정현 최고위원 정부와 당 인사문제 거론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25일 정부와 당의 인사문제와 관련, “지역·학벌 등을 초월한 인사민주화가 이뤄져야만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대적 요청이 화합과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지역·학벌 등을 초월한 인사의 탄력이 필요

하다. 경제민주화에 이어 인사민주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땃줄을 어디 뚫었느냐가 인사의 중심이라면 이는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자기 땃줄을 자기 마음대로 끌러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지역주의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사전거부·정보기관·언론

기관 등을 포함해 누가 봐도 당에 관계 없이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부처·부서에 대해서 지역·학벌 등을 초월해서 (인사를) 해야 한다”며 “주요 정부직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청와대 인사담당 시스템부터 점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 헌법재판관 추천 문제가 있는데, 우리 당이 이런 점에 유의해 선택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여 의장단 선출 원포인트 국회 추진

야당 반대때만 단독 소집 검토...야 “정치꼼수” 강력 반발

새누리당이 이번 주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추진하며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 소집도 불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은 “야당을 자극해 국회 공전을 장기화하려는 꼼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다음달 11일 임기개시를 앞둔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제때 이뤄지지 못할 경우 대법관 공석사태로 재판기능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장단 선출은 재적과반 찬성으로 한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에 원포

인트 국회를 제안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우선 민주통합당과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의 합의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대법관의 임기개시일 하루 전인 다음달 10일까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늦어도 27일까지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의장단 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새누리당의 구상대로 일이 진행될 경우 의장단만 구성되는 19대 국회로 재판기능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5명, 자유선진당 4명의 표 단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는다면 선출은 무난하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야당이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의 단독 소집까지 검토하고 나서에 따라 야권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압박용이고 정치적인 꼼수”라며 “실제 단독개의를 강행한다면 다음 수순은 상임위원장 독식일 것인데, 이는 결국 박근혜 정신인 유신정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쌍용차 문제 해법찾읍시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통합진보당 강기갑 비대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발족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진보 당대표 경선 돌입

강기갑·강병기 출마...신·구당권파 세대결

통합진보당은 25일 인터넷 투표를 시작으로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당직선거에 돌입했다.

당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 당의 진로는 물론이고 신·구당권파의 운명이 결정돼 양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세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는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 중앙위원, 당대의원, 광역시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된다.

당 대표 후보로는 신당권파의 강기갑 혁신비상대책위원장과 구당권파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강병기 전 경남도 정부부지사가 출마했다.

또 최고위원 경선에는 신당권파의 이정미·이종우·민병렬 혁신비대위원과 천호선 전 대변인이, 구당권파

의 이해선 전 민주노동당 노동위원장과 유선희 당원비대위 집행위원장이 출마했다.

경선은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 ▲ARS 모바일투표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1인1표를 행사한다.

인터넷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통합진보당은 또 오는 29일에는 총 138개의 투표소에서 오프라인 현장 투표를 한다.

ARS모바일 투표의 경우 30일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세 차례 걸쳐 전화가 걸려가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29일까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선거권자다.

ARS모바일 투표가 완료되면 곧바로 개표결과가 발표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8·20전대 대선 후보 선출

최고위, 경선 일정 확정

새누리당이 오는 8월 20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경선일정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25일 황우여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8월 21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당 대선후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헌헌 후추 논의를 갖고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당 지도부가 8월 20일 후보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비공개 주자들이 요구해온 완전국민경선제는 거부

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경선규칙대로라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몽준·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경기지사 등 비박계 대선 주자들은 대리인 모임을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져 당내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 같이 경선 틀을 놓고 대선 주자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8·20 전당대회가 반쪽 경선으로 흘러가고 있다. 우선 낯선 대립각을 세웠던 비박 주자군이 경선 불참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경선 선거운동이 런던올림픽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법, 대법관 임명동의 조속 처리 촉구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법관 임명동의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 지연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 표명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국회에 가서 우려를 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발표문에서 “대법관 4인이 퇴임하는 7월10일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절차가 마무리되면 조속히 인사청문회 등 임명동의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명확한 일정이 가시화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공백사태가 발생하면 대법원 재판기능이 마비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공백사태가 오면 전원합의

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소부(4인)의 파행운영으로 매달 1500여건의 사건 처리 지연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상 위원 선임, 출석요구서 송달 절차와 대법관 후보자 4인의 청문회 소요 기간(1인당 1일 가정했을 경우 4일)을 고려할 때 26일까지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7월10일까지 동인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에 고영환, 김병화, 김신, 김창석 후보자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이낙연, 개인택시 조세특례법 발의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25일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법인택시처럼 연료비, 차량구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법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석유판매부과금과 정유사(수입사) 세전 공급가격 및 차량구입,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도 2015년 12월까지 주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택시의 주원료인 LPG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해주고 있으나 최근 가격 인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특히 개인택시는 세계 해택이 적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욱 큰 편”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철,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25일,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도록 하고 검찰근거가 곧바로 대법관이 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법관후보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함에 계층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중시하도록 했고 ▲추천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 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정해 심사과정의 보다 투명해지도록 했으며 ▲대법관 임용자격에 현직 검사는 제외되던 변호사 경력에 관·검사 경력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카드대금 “즉시결제”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모든가맹점 카드매출을 1시간 이내로 입금해 드립니다

현재 사용중인 카드체크기 포스 그대로 사용 가능

사용가맹점
주유소, 할인마트, 호텔, 모텔, 학원, 할인의료점, 유흥업소, 각종체인점, 식당, 종교차시장, 예식장, 장례식장 등 모든카드사용 가맹점

SC제일은행
카드매출 매입서비스 지정점 062-383-6364
대리점 모집 (전라권)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어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중앙 공급식 냉·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경매투자

- ▶실전경매 배우면서 입찰에 참여하여 수익 내실 분
- ▶4명한정 / 주1회 2시간 3개월 완성
- ▶입찰활동비 / 교재비 등 별도 회비없음
- ▶특수물건만 전문투자
- ▶공통투자 가능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